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 일 시 : 2016. 7. 7.(목) 10:30
- 장 소 : 서산문화원(2층 문화감상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 일　　시: 2016. 7. 7.(목) 10:30 ~ 12:30
- ■ 장　　소: 서산문화원
-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 주　　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진 행 흐 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0:30	10:3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정책지원팀장
10:35	10:4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맹정호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맹정호 의원
10:40	10:55	15′	주 제 발 표 ‣ 이상근/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충남 초·중·고 체육 활성화 방안	
10:55	11:35	40′	지 정 토 론 ‣ 김선임 / 보원사 사무장 ‣ 임경호 / 충청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 ‣ 이병렬 / 서산타임즈 대표 ‣ 김맹호 / 서산시의회 의원	토론자 전체 (각 10분)
11:35	12:00	25′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2:00	12:25	25′	청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2:25	12:3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

목 차

■ 주제발표

☞ 충남지역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 등재 가능한가? …… 7
이상근(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 지정토론

☞ 가야산과 불교문화 …… 23
김선임(보원사 사무장, 내포가야산성역화추진위 사무국장)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절차 개요 …… 31
임경호(충청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

☞ 충남지역 불교문화 세계유산 등재 방안 …… 45
이병렬(서산타임즈 대표)

☞ 충남지역 불교문화 세계유산 등재 방안 …… 55
김맹호(서산시의회 의원)

주제발표

충남지역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 등재 가능한가?

이 상 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충남지역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 등재 가능한가?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이 상 근

< 발표자 소개 >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대한불교조계종중앙스도회 사무총장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대표
사단법인 남아나눔은남 손의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사회적기업 연등회한재 대표이사

시리즈 | **해외 문화재 16만 점,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할 길 열렸다**

문화재보호법 제67조 개정 2015년 12월 31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2016-02-25 |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칼럼 | **일본의 보수우익 집권세력 '아마구치의 사람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성노예 피해자(위안부)에 대한 한일양국의 정부...

2016-02-04 |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칼럼 | **문법 반출 문화재환수, 지금 필요한 것은?**

헤미다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문화재의 현황을 발표한다, 2015년 12월 국회등록가역사왜곡대...

2016-02-01 |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칼럼 | **멕시코 아즈텍 달력과 서산 부석사 불상**

각들과 도난의 역사를 남에

2016-01-19 |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1. 들어가며

2015년 7월, 도이칠란트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커다란 이슈에 직면하였다. 이유는 일본의 메이지시기 근대산업유산의 등재 여부를 놓고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강제노동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 유산의 전 기간이 아닌 일부(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만 기록하고, 8곳 23개의 시설물을 짜맞추기 하듯이 부분 발췌하여 등재를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제노동을 당한 나라 즉 한국, 중국 등은 물론 연합군 포로로 노역에 혹사당한 국가(러시아, 미국, 영국 등)에서 등재거부나 보류 요청이 쇄도하였다. 필자는 그 현장에서 1주일간 '일본의 반성과 사과 없는 근대산업유산등재 반대" 캠페인을 강제징용피해자단체, 재도이칠란트 교민들과 벌였다. 결과는 강제노동사실을 적시하여 회의록에 남기고 산업시설 현장 인포메이션센타에 강제노동 기록(방문객을 위한 팜프릿이나 홈페이지 게제 수준)을 하기로 한국정부와 합의함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많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거부 활동단 모습>

일본 정부의 후원에 의존하는 유네스코가 문제가 있는 유산의 등재에 합의하였다는 뒷소문과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유산의 전 기간과 전부가 아닌 일부를 편의에 의해 발췌 등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한국이 신청한 백제역사유적 등재에서도 벌어졌다.

2. 2015년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등재와 과제

당시 본 총회를 취재하던 외국 언론이나 참관인 사이에서는 '일본 산업유산 등재 심의'에 앞서 열린 '한국 백제역사유적 등재'에 일본 정부가 협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유는 백제역사유적 등재에는 백제역사 전 기간과 유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의 발췌 유산 신청과 비교당하며 의문과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일본 산업유산은 회의 보류와 연기를 거쳐 7월 5일 등재 확정되었고 이에 앞서 7월 4일 백제역사유적의 등재가 결정되었다. 백제유적이 등재되던 순간 어느 나라보다 크게 축하하던 일본 대표단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등재 현황>

- 3개 지역(공주, 부여, 익산)
- 5개 분야(왕성유적, 도성방어시설유적, 왕실별궁유적, 종교시설유적, 왕실묘제유적)
- 8개소(공주의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015년 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등재는 당시 동아시아에 있어 절대 강자이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리고 인류보편성을 지닌 유산을 다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았다.

그럼에도 유산 심사기관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백제유산이 독창성('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과 보편성(동아시아 3국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들어 등재를 결정하였다.

<소설 '근초고대왕'에서 소개하는 당시 백제의 모습>

가. 한성백제시기(BC 18~475)의 누락

백제 역사의 2/3를 차지하는 한성백제시기가 유산 등재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전 기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유적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이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일제강점기 도굴, 근대화 산업화 시기 개발로 인해 파괴 등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해도 등재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은 향후 과제를 말해준다.

이 때문에 학계의 일부에는 한성백제가 빠진 유네스코 등재를 연기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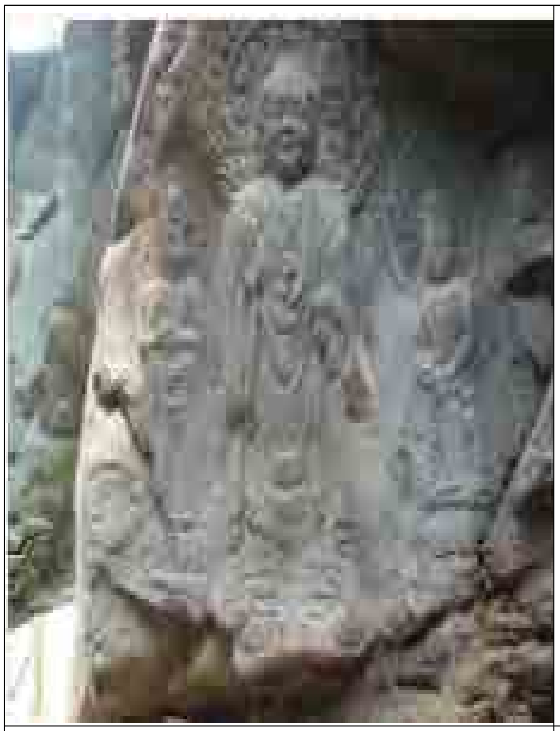
지금 서울시는 2020년 한성백제왕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섰다. 방식은 등재된 웅진, 사비 백제역사유적과 연계하는 확장(extension)방식이고 내년 잠정등재목록 신청, 2018년 우선등재대상으로 선정, 2019년 신청서 제출, 2020년 등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대상은 왕성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왕실무덤인 석촌동 고분군과 방이동 고분군, 방어성으로 추정되는 삼성동 토성이 주요 유적이다.

나. 충남지역 유산의 추가 등재 여부

백제연대기 중 웅진과 사비의 시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75년 웅진 천도이후 극심한 혼란기에도 정국을 수습하고 제25대 무령왕 시대에는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와 문화만으로 국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국가지도자로서 롤 모델로 계승할 바가 많다. 공주의 상징적인 인물로 무령왕을 내세워도 좋을 듯하다. 더구나 무령왕릉은 도난과 도굴을 피해 유일하게 유물의 전부를 보여 주었다. 왕릉에서 발견한 4,600여점의 유물과 유적은 백제인의 당시 종교관과 행동 행식,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더구나 현존하는 발굴 고분 중에 왕릉의 주인이 유일하게 밝혀져 고대사연구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고 있다.

538년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별궁으로 익산에 왕성을 조성하고 많은 유산을 남겼다. 위덕왕이 선왕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금동대향로는 금세기 최고의 공예품으로 평가 받아도 손색이 없고 무왕은 중국, 일본과 문화교류를 통하여 사비백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추가 등재하여야 유산으로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태안의 마애삼존불, 공주의 수촌리 고분군, 정지산 유적, 부여의 청마산성지구와 구드래 지구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지속적인 확장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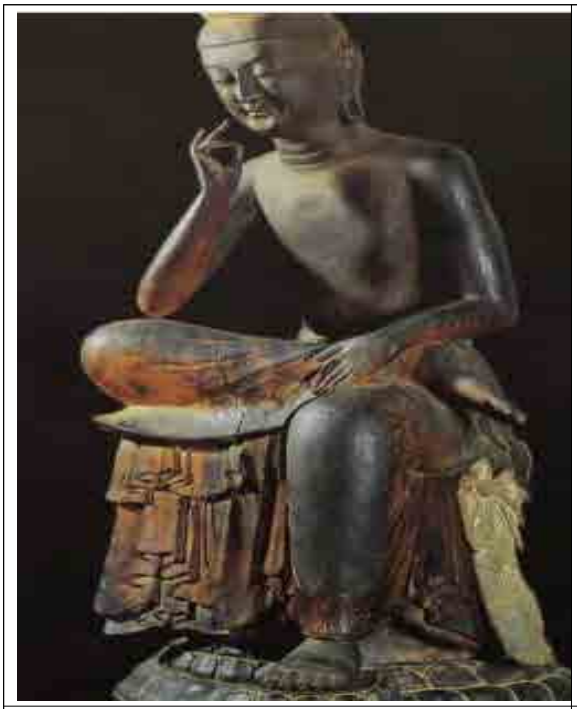
	
서산 마애삼존불	**태안 마애삼존불**

다. 일본 속의 백제유산

고대 일본은 백제의 영향권에 있었다. 천자문의 전래부터 종교, 건축, 공예, 제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백제의 영향이 있었고 아스카 문명을 꽃피운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본 국보1호로 지정한 목조반가사유상이나 백제의 보살, 칠지도 등이 증거의 예이다. 이러한 유물 말고도 일본 왕가에 전해진 혈연관계 등 인적교류, 풍습, 문화, 지명 등도 백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일본의 고대사 왜곡과 과거사 미 청산으로 역사왜곡이 강화되는 속에서 백제역사 지우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속의 백제유산은 고대 동아시아 3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일본 내 일부세력의 역사 지우기를 막고 올바른 한일 관계 발전을 이룰 지름길이다.

백제역사유적의 추가 확장 등재과정에서 일본과의 연대를 통하여 대표적인 유산의 공동 등재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 대마도는 조선통신사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하여 부산시와 협력,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류지 반가사유상	가카라시마 무령왕 탄생지 모습

3.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확장 등재와 방향

통상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네스코 본부 아시아 수석연구원의 조언이다. 더구나 백제유산과 같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여러 국가, 지역의 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준비, 국가 및 지역 당사자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방향에 대한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유산등재가 정부나 지자체의 실적처럼 오인되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 그리고 등재이후 10여년이 지나면 어느새 관심사에서 멀어지곤 한다. 참고로 2015년 현재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을 살펴보자.

가. 세계문화유산 11건

- 석굴암 및 불국사(1995년) -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 종묘(1995년) - 창덕궁(1997년) - 수원 화성(1997년) - 경주 역사지구(2000년)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 조선왕릉 40기(2009년)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년) - 남한산성(2014년) -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나. 세계 자연유산 1건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다. 세계기록유산 11건

- 훈민정음 해례본(1997년) - 조선왕조실록(1997년) - 승정원일기(2001년) - 직지심체요절(2001년) - 조선왕조 의궤(2007년) -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 동의보감(2009년) - 일성록(2011년) - 5.18민주화운동기록물(2011년) - 난중일기 (2013년) -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라.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 16건

- 종묘제례악(2001년) - 판소리(2003년) - 강릉단오제(2005년) - 강강술래(2009년) - 남사당(2009년) - 영산재(2009년) - 제주 칠머리당영등굿(2009년) - 처용무(2009년) - 가곡(2010년)	- 대목장(2010년) - 매사냥술(2010년) - 택견(2011년) - 줄타기(2011년) - 한산 모시짜기(2011년) - 아리랑(2012년) - 김장문화(2013년) - 농악(2014년)

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5건

- 설악산(1982년)
- 제주도(2002년)
- 신안다도해(2009년)
- 광릉숲(2010년)

- 고창(2013년)

이 중에 보전과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나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참여는 잘 이루지고 있는지, 자발적인 축제로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속성과 확장성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등재를 신청하려는 지자체의 유산은 많지만 이제는 등재 이후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유산의 등재를 기점으로 관광객 유치 등 상업적 목표달성에 우선하기보다는 가치 활용이라는 측면에 우선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축제와 연계되어 고민하는 지자체라면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을 사례로 연구하는 것은 어떨까.

또한 무엇보다 고려하여야 할 점은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의 추가 확장 등재를 위한 제도적, 인적 기반 구축이다. 지역민들과의 공감과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산의 등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에서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유산 되찾기 도민위원회"** 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15년 문화재보호법 69조의 개정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에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제역사유적의 추가 확장등재는 물론 일본 등 국외소재 유산의 보전, 가치 활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과거 불법적인 수단으로 약탈당한 유물의 환수노력도 시급하다. 백제 유산의 대표적인 약탈자는 일제강점기 가루베 지온을 꼽을 수 있다.

가루베 지온(輕部慈恩)은 1927부터 공주고보 교사로 근무하면서 공주 일대 백제고분 송산리 6호분 등을 불법 발굴한 인물이다. 도굴 당시에 수많은 백제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하였으며 특히 해방 후 혼란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문화재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이유로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한국 정부로부터 유물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유물이 없다'라고 주장, 결국 당시에는 돌려받지 못하였다. 가루베가 사망한 후인 2006년에 와서야 그의 아들에 의해 "삼국시대 연화문(蓮花文) 기와 완형 2점과 조각 2점 등 단 4점이 공주국립박물관에 반환됐다. 그의 대부분의 유물은 현재 국립나라박물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주박물관 유물 기증자 명패에 있는 가루베 하시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증자 명부에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선의의 기증자로 오인할 수 있다>

4. 결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지식문화정보화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젠 인공지능, 로봇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물질문명의 가속화는 필연적으로 인문사상 문화 콘텐츠의 욕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아니면 소멸하든가.

따라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산업도 확장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대왕국 백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가치를 향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관광산업>라는 일차적 접근 방식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지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등재 이후 그리고 잃고 있거나, 잊고 있는 혹은 숨기고 있는 백제역사되찾기도 시급하다.

■ 참고 세계유산 등재 기준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골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변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한 문명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캐나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 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 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이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캐나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함	중국 ㅅ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정토론

◈ 가야산과 불교문화

김선임(보원사 사무장, 내포가야산성역화추진위 사무국장)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절차 개요

임경호(충청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

◈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이병렬(서산타임즈 대표)

◈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김맹호(서산시의회 의원)

가야산과 불교문화

보원사 사무장
(내포가야산성역화추진위 사무국장)
김 선 임

신라 땅에 경주 남산과 석굴암이 있다면, 백제 땅에는 내포가야산과 예산사면석불, 태안마애삼존불,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다. 백제문화권 부여ㆍ공주에 귀족문화가 발달하였다면, 내포지역 가야산은 활발한 해상교역으로 선진 서민문화가 꽃피었다.

□ 가야산과 백제시대

1. 백제 선진문화특구

1) **백제의 지배층**은 압록강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해양세력으로 고구려의 건국과 함께 밀려 내려 와서 강화만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해양족들

2) **백제는** 한반도 서남해안의 물길을 따라 영토를 확장해 가서 근초고왕(346~374) 때는 예성강으로부터 임진강, 한강, 삽교천, 금강, 만경강, 영산강, 섬진강 전 지역 장악

- 제해권의 장악으로 제주도와 낙동강 수계의 6가야 복속시키고 요동반도와 일본열도에 해상거점 마련

3) **천도** : 고구려 광개토왕(391~413) 출현으로 고구려 국세가 막강해지자 백제 개로왕 때 임진강 이북의 영토를 빼앗겨 한강 수계 대부분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공주)로 천도

4) **무녕왕은** 개로왕의 아들로 등극하자 고구려 정벌과 한강 일대의 옛 땅과 제해권 탈환에 노력

① 가야산 일대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온 지역 큰물현(예산

일대)에 수군선단을 설치하고 조선(造船)과 무기 제조 (사진1, 보물 제794호 예산 사면석불)

② 신라의 급성장은 수군본영을 태안반도(태안)로 이동(사진2, 국보 제307호 태안마애삼존불)

- 신라의 성장은 낙동강 하구 해상왕국 금관가야를 합병하였고, 백제는 가야와 일본으로 이어지던 제해권에 타격을 받으면서 성왕 때 수도를 사비(부여)로 천도

5) **백제문화특구** : 큰물현 일대 내포지방(예산, 서산, 태안, 당진)은 활발한 해상교역으로 경제 중심지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의 문화특구(사진3,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 화엄10찰의 보원사)

2. 백제 부흥운동의 선봉지

- 백제 의자왕이 660년 나당연합군에 항복
- 나당연합군이 항복조건을 어기고 약탈자행을 저지르자 흑치상지가 항전의 기치를 들고 10여일만에 3만여명이 임존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

사진 1

사진 2

사진 3

□ 가야산과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 추진 운동

한국자연•문화유산의「세계복합유산」등재를 위한 포럼 계획
- 내포(서산)가야산권의 유형을 중심으로 -

- 일시 : 2008년 2월 27일(수) 13:30~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 주관 : 불교정책기획단, 수덕사, 내포가야산 세계유산등재 준비위원회
- 주요 식순

□ 제1부

* 인사말 - 수경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 인사말 - 김의정: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 격려사 - 범하스님 : 불교중앙박물관장/통도사 성보박물관장
* 격려사 - 옹산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 감사의 말씀 - 윤규상 : 내포가야산지역향토사학자/월진회장
* 기조발제 - 한광용 :불교정책기획단 정책위원/환경분석학박사
  (세계복합유산으로서 내포가야산의 가치)
* 발제1 - 유네스코 한국지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등재 기준과 전망)
* 발제2 - 흥선스님 : 직지사성보박물관관장/문화재위원
  (불교문화의 심미적 가치와 보존방향)
* 발제3 - 이영신 :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내포가야산의 자연환경생태)
* 발제4 - 김현문 : 한서대학교 대학원 교수
  (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사상의 가치)
* 발제5 - 임민경 : 한국건축연구소 실장
  (가야산의 활용방안 : Eco-Museum)

내포가야산을 유네스코의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추진

내포산 내가 막는 포구가 새록 귓속이 들어와 있는 지역을 뜻한다. 내포지방은 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에 연결된 대륙하천을 통해 가야산 지릭까지 물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으로, 가야산 중심으로 열 고을(현재,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내포지방은 고대문물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유럽지로써, 백제와 공주, 부여뿐만 아니라 신라 경주, 그리고 해양을 통해 일본까지 문물을 전파한 전래지였다.
예부터 내포지방의 중심인 가야산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국보인 서산마애삼존불, 태안마애삼존불과 수많은 유적과 보물들이 현존하고 있다. 또한 가야사와 보원사 등 골짜기마다 사찰이 세워졌으나, 지금은 대부분 폐사지로 남아있고, 그 수가 100여개가 넘는다.

내포가야산권은...

1. 역사 · 지리적 배경

· 가야산의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해미면 일대
· 높이 : 해발 678m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북으로 갈려나온 정맥인 금북정맥은 안성칠장산에 이르러 두줄기로 갈리져 한남정맥으로 북진하오 경기도의 기맥이 되고, 서진한 금북정맥은 충남이 기맥이 되었다.

· 가야산권의 지리적 위상

내포(內浦) 문화의 중심 가야산

예로부터 중국 무역에 있어 거점 역할을 했던 서산, 당진과 접하여 위치함으로써 중국 문물이 유입되어 내륙으로 이동하던 길목에 가야산권이 위치함.
이중환은 「택리지」에 충청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 서술하는 '내포' 의 서해안 10개 고을의 영역에 가야산권이 위치함.

· 가야산권의 역사적 의미

1. 서민 문화가 꽃핀 곳

공주 ·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의 귀족 문화가 꽃피웠다면 가야산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백제의 서민 문화가 꽃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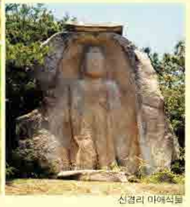
2. 민중의 애환이 담긴 곳

· 백제 부흥운동을 비롯한 민중 저항의 중심지
· 고려 때에는 '망이?망소이의 난' 때의 피난처
· 천주교 박해 때의 피난처/순교지
· 갑오농민전쟁 서북부 항쟁

수덕사

남연군묘(가야사 터)

폐사지



신경리 마애석불

2. 자연생태현황

· 식물 : 총77과 201속 262종 20아종 28변종 5품종

구 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양치식물	3	4	5	-	-	-	5
나자식물	2	4	5	-	-	-	5
피자식물	72	193	252	2	28	5	287
단자엽식물	9	33	40	-	5	1	46
쌍자엽식물	63	160	212	2	23	4	241
총 계	77	201	262	2	28	5	297

· 조류 : 총11목 25과 56종 419개체

· 멸종위기 II급 삼광조, 올빼미, 수리부엉이 3종서식
· 환경부 지정 특정종으로는 붉은배새매, 매사촌, 검은등뻐꾸기, 벙어리뻐꾸기, 소쩍새, 청호반새,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물까마귀, 되지빠귀, 꾀꼬리 등 10종 서식
· 삼림이 우수하고 계곡이 잘 보전되어 저지대 산이면서도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보전가치가 크다

· 어류 : 총2목 5과 5종

가야산권 어류조사결과 조사구역 전 구간에 1급수 어종인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어 가야산권일대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조사결과 총 2목 5과 5종의 어종이 관찰.
한국특산종은 얼룩동사리 1종으로 전체조사 2종대비 20%으로 나타났다.

· 곤충 : 총10목 53과 117종 (육상)

조사결과 총10목 53과 117종으로 조사.
딱정벌레목이 종풍부도가 가장 높게 조사.
우점종 : 꿀벌류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 〉배추흰나비 〉무당벌레
* 특: 한국특산종, 일: 일차담수어, 주: 주연성어종, 환: 환경지표종(청정수역)

· 환경적 피해

1.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2차선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 충남예산군, 서산시, 운산면, 해미면 일대 추가 송전선로 건설

2. 가야산일대의 과도한 등산객의 답압

· 등산객의 산나물 채취등으로 인한 등산로 주변 훼손

식물상 · 공사가중단된 송전철탑이 방치되고 있으며, 공사시 이 지역 일대에서 식생훼손
· 등산객들의 과도한 답압과 산나물채취등으로 인한 등산로 주변 식생훼손과 임도 주변도 법면녹화

동물상 · 내포가야산권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조류,곤충등의 다양한 서식지 훼손과 종다양성 감소등 환경적 피해 발생

3. 가치와 중요성

· 역사 · 지리적 가치

백제의 서민문화가 꽃핀 곳 - 백제 부흥운동의 본거지
천주교 박해 때 피난처
갑오농민전쟁 서북부 항쟁 등 민중의 한이 서린 곳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서해안 10개 고을을 내포라 칭하고, 충청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 함
금북정맥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내포문화와 불교문화의 융합

· 자연 · 생태적 가치

계룡산 국립공원보다 2.5배나 되는 식생 분포
1000여종의 수목이 폭넓게 자생 · 200여종의 초본류
노루 산토끼, 너구리 등의 포유류와 고슴도치 족제비, 두더지 등
꿩 멧새, 꾀꼬리, 까치, 소쩍새, 독수리등 다양한 조류 서식
딱정벌레목, 나비목, 매두기목, 노린재목, 사마귀목 등 326종 서식

· 문화적 가치

서산마애여래삼존불(국보 제84호), 보원사지(사적 316호)
남연군 묘(도기념물 150호), 남연군신도비(문화재자료 191호), 박일량기적비,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자연의 미로 각광받는 개심사,
일락사, 보덕사, 원효암, 성가리 돌미륵, 강댕이 미륵불,
옛 가야사지 등 100여개의 폐사지, 덕산온천, 해미읍성, 홍성면천읍성,
은판골 유물산포지, 휴양림주차장, 유물산포지 등 문화적 가치풍부.

· 유기체적 가치

서양의 자연환경 관점은 눈에 보이는 지형, 지물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동양 자연환경사상(풍수지리사상, 비보사상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로움" 을 중시한다.

모든 문화유적등은 자연환경사상에 의거 위치함.
수 많은 문화유물의 존재가 곧 가야산의 자연환경적 가치를 의미함.
즉, 역사, 문화, 자연환경은 하나의 유기체이다.

역사, 문화, 자연환경은 하나의 유기체
역사-삶의 기록 / 문화-삶의 모습 / 자연환경-삶의 바탕

우리의 문화유산은 자연환경 위에 문화가 조화를 이룬 것으로서
우리의 문화유산은 모두 복합유산이다.

마애삼존불

원효암터

4.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내포가야산권

· UNESCO 세계유산 - 상징의 의미

·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며 단원은 자연을 의미
· 사각형과 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밀접히 연관져 있음을 나타내며 둥근 로고는 세계의 표상이며 보호의 심볼임
· 전체적으로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상호보존 및 자연과 인간의 연관성을 상징

· UNESCO 세계유산- 평가 기준

문화유산

1.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2.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3.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4.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5.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 · 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6.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자연유산

1.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2.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3.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4.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서식지.

· 세계유산 평가기준 적용 사례분석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문화유산	21	24	8	10	40	35	28	12
자연유산	5	5	1	3	1	2	1	1
복합유산	-	4	-	-	-	2	1	1
계	26	33	9	13	41	39	30	14

사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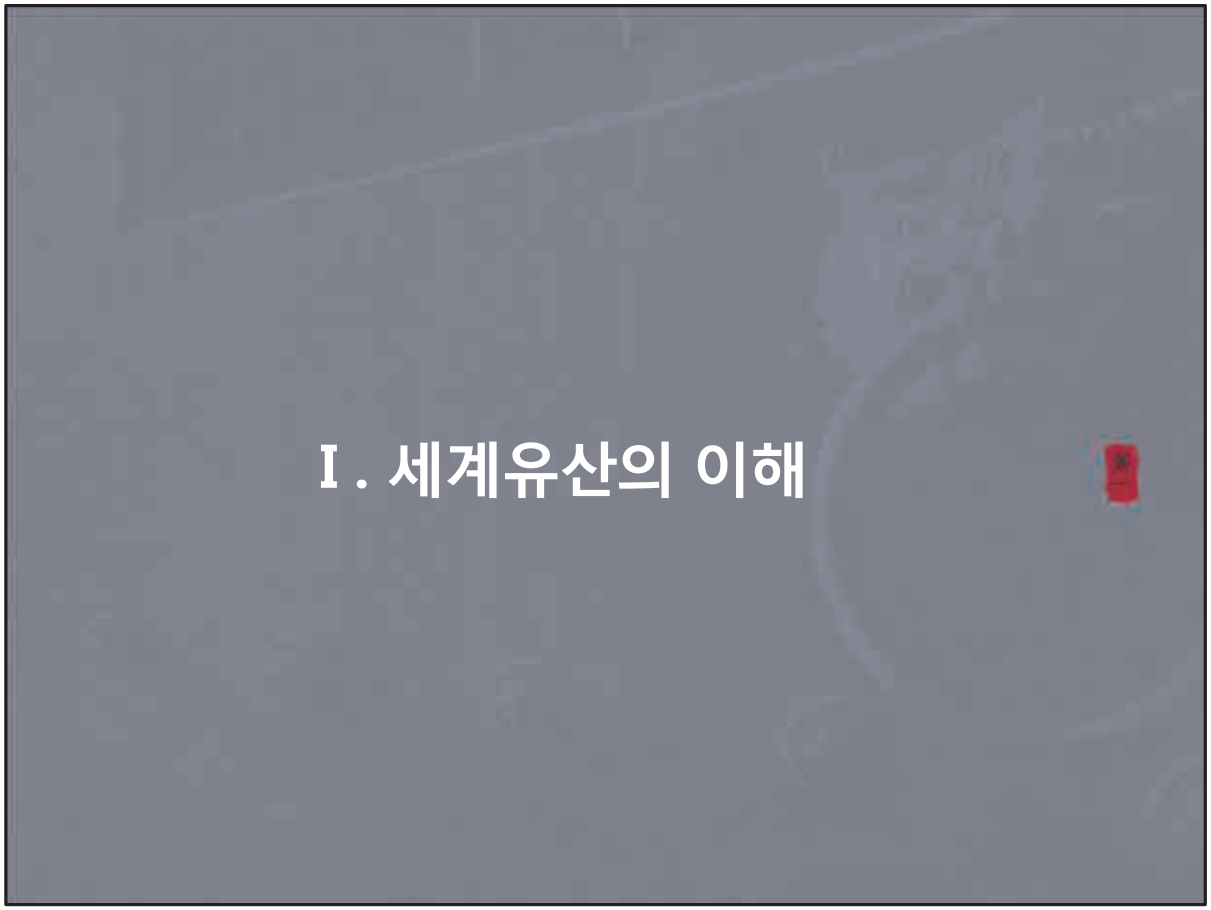
· 그리스 · 로마 문화권과 인도 · 중국 문화권 비교 - 동양권 세계유산 등록률 저조
· 동양권 內 등록률 비교 - 문화 전파 경로 고려 시 남북한 총 9개는 저조
· 예상 원인 - 가치 인식 부족 / 서양 관점의 평가 기준

· 세계복합유산 평가기준 만족

· 진정한 "우리 지역의 가치" 인식 필요
· 지역 역사 · 문화자료, 전통자연사상 체계화 필요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UNESCO 등 설명 필요

가야산
다시찾은 백제의 미소
시원사터
사면석불
상하리마애불
고지도 속의 가야산
강상리마애불
대혜산전불
백암사터
보원사터
미륵불
미륵불
유적
범례
사찰
폐사지
신경리 마애불
용흥사
천호암터
수덕사
해미읍성
개심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절차 개요
– 충남지역 백제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관련 –
충남도청 문화재과 임경호


Ⅰ. 세계유산의 이해

I. 세계유산의 이해

세계유산 개관

-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 WORLD HERITAGE · PATRIMOINE MONDIAL

I. 세계유산의 이해

세계유산의 유형

종류	·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신청국 구성	· 단독유산, 공동 등재 유산(24)
유산의 구성	· 단일유산 , 연속유산
보존상태	· 위험에 처한 유산 (34)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

등재 추진 과정

- 유산 관련 정보 및 행정적 정책적 사항 총망라
- 관련된 제도 및 보존관리 정책 정비
- 유산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

등재 이후

- 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음
- 소유권 및 유산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내법 준용
- 국민과 정부의 관심 증대로 유산의 가치 확산
- 관광객 증가 및 관광 수입 증대

I. 세계유산의 이해

세계유산 등재 절차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하여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 잠정목록 유산 중 세계유산 신청유산 선정, 신청서 작성 → 세계유산센터에 신청 접수(2.1) 자문기구에 평가 의뢰 → ICOMOS와 IUCN의 현지실사, 평가와 권고안 →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 평가 결과 검토 →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등재 여부 결정

I. 세계유산의 이해

잠정목록

잠정목록 대상 신청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 잠정목록 대상 문화재 선정 → 잠정목록 대상문화재 조사와 신청대상 선정

잠정목록 신청대상 확정 –문화재위원회 심의 →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세계유산

등재신청 사전 협의 – 지자체 → 문화재청 → 등재신청서 작성 제출 – 지자체 → 문화재청 → 등재 신청서 검토와 신청 대상 조사

등재 신청 문화재 확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신청서 감수와 보완 초안 유네스코제출(9.30) → 최종 신청서 제출 –1차년도 2월1일까지

I. 세계유산의 이해

등재기준

문화유산	자연유산
①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② 건축, 기술, 기념물, 도시 계획, 조경에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③ 현존 또는 사라진 문화적 전통, 문명의 특출한 증거 ④ 인류역사의 중요단계 예증 건축, 기술의 총체, 경관의 대표적 사례 ⑤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변하는 정주지, 육지 사용, 바다 사용을 예증하는 사례 ⑥ 사건, 전통사상 등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연관된 사례	⑦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⑧ 생명의 기록, 지질학적, 지형학적, 자연지리학적 특징을 포함한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의 사례 ⑨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 진화의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사례 ⑩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나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자연 서식지

Ⅱ.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 과정 및 등재가치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과정

•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1. 12. 22

문화재청장 · 충남도지사 · 전북도지사 · 공주시장 · 부여군수 · 익산시장

●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립 운영

• 설립허가 : '12년 4월 19일 (문화재청 제2012-4호) / '12년 5월 3일 (등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과정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10. 01. 11. (공주-부여 / 익산역사유적지구)
- 세계유산 우선추진 대상 선정(문화재청) : `11. 02. 08.
  -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 (공주 · 부여 · 익산)
-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 `14. 01. 28.
- 신청유산 현지 실사 (ICOMOS) : `14. 09. 16 ~20.
- 세계유산 등재 권고 (ICOMOS –> 세계유산위원회) : `15. 05. 04.
- 세계유산 목록에 [illegible]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독일) : `15. 07. 04 [illegible]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건축기술, 도시계획의 원리 등을 더욱 발전시킨
킨켜,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준 사실을 증명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
저

Ⅲ.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동향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동향

- 조계산 선암사
- 두륜산 대흥사
- 속리산 법주사
- 태화산 마곡사
- 영축산 통도사
- 천등산 봉정사
- 봉황산 부석사

조계산 선암사

선암사의 지정문화재

- 사적 제507호
- 명승 제65호
- 보물 제400호 선암사 동·서삼층석탑 등 보물 14점
- 국가지정문화재 18점
- 시·도지정문화재 11점

두륜산 대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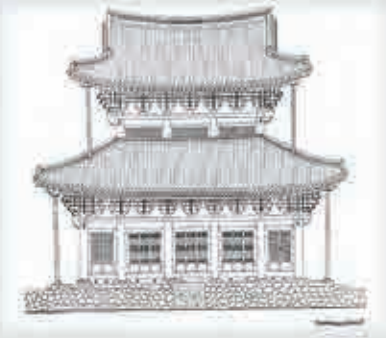
대흥사의 지정문화재

- 사적 제508호
- 명승 제66호
-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여래입상 등 국보1점 보물7점
- 국가지정문화재 10점
- 시·도지정문화재 8점

태화산 마곡사

마곡사의 지정문화재

•보물 제801호 마곡사 대웅보전 등 보물5점
•국가지정문화재5점
•시도지정문화재11점



영축산 통도사

통도사의 지정문화재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외 보물19점
•국가지정문화재20점
•시도지정문화재51점
•등록문화재1점

천등산 봉정사

봉정사의 지정문화재

-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등 국보2점 보물6점
- 국가지정문화재 8점
- 시·도지정문화재 7점

봉황산 부석사

부석사의 지정문화재

-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등 국보5점 보물5점
- 국가지정문화재10점
- 시·도지정문화재2점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의 지정문화재

- 사적 제503호
- 명승 제81호
- 국보 제55호 법주사 팔상전 등 국보3점 보물12점
- 국가지정문화재 17점
- 시·도지정문화재 20점

Ⅳ. 충남지역 백제불교유적 등재추진시 고려사항

등재신청시 고려사항

1.유산의 명시

유산의 경계를 분명히 정의해야 하며, 등재를 신청한 유산과 완충지대(해당 시)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지도는 정확한 등재 신청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등재신청시 고려사항

2. 설명

유산의 역사 및 발전 개요와 함께 해당 유산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중요사항 : 연속유산의 경우, 등재 신청 지역으로 제시된 구성 요소의 모든 부분이 명확히 기술 되어야 한다.

등재신청시 고려사항

3. 등재신청 근거

해당유산이 등재 신청 근거가 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언급된 각각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기술.

해당 유산이 등재신청 근거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간략히 설명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에서는 해당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등재 신청 유산의 중요성을 국제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성, 진정성에 대한 기술에서는 해당유산이 운영지침 63-75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증명

등재신청시 고려사항

4. 유산의 보존상태

유산의 물리적 상태와 유산에 대한 모든 위협, 해당 유산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개발 압력(예 : 침해, 조, 농경, 채광)
(ii) 환경적 압력 (예 : 오염, 기후변화, 사막화 현상)
(iii) 자연 재해 및 재난 대비 (지진, 홍수, 화재 등)
(iv) 방문객/관광산업의 압력
(v) 신청 대상물과 완충지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방안 개요

서산타임즈 대표
이 병 렬

◆ 세계유산 등재 지자체 관심 고조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와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등재 대상후보 자원의 발굴을 통해 공주·부여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범위는 익산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 등 모두 8곳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유적지구 유산이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삼국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과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 부여 능산리 등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06년 10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자료를 제출하면서 2010년 1월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5년여 만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은 1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의 이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그 문화를 만든 국가를 높이 우러러 보며, 아울러 국가 위상도 올라가고 관광사업도 번창하게 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기금 및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공동체 및 국가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자신들이 보유한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원 상태로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유네스코 신탁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다.

세계유산의 소유권 및 관리 책임세계유산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국제협력 및 지원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 제15조와 제18조에 따라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기금'이 만들어졌다.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원에 따른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기금은 세계유산지역의 보호를 위한 당사국 활동을 보완한다. 세계유산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한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이 대상이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평가 기준인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대표.

둘째,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

셋째,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

넷째,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

다섯째, 문화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 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 또는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

여섯째,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 연계 여부다.

이러한 기준을 볼 때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는 둘째와 셋째 지침에 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한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성곽 건축, 왕릉, 석탑 등 건축물의 기단에 건축물과 건축기술의 발전을 야기한 교류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웅진왕도와 사비도성의 입지선정, 불교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석탑들은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단위 유적들은 전체로서의 유산이 지녀야 할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유적들은 수도의 역사적 기능과 그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이라는 전담기구를 통해 보존 관리되고 있으므로 완전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외곽성, 왕성, 사찰, 왕릉 등 전체적인 도시구조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 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유적들은 진정성에 관한 모든 면에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 물질, 입지와 환경, 용도와 기능, 기술과 관리체계, 정신과 무형에서 전체 연속유산의 지정성이 타당하고 그 연속성을 구성하는 개별유적의 진정성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 충남지역 천주교 종교유산 등재 추진

충남도는 천주교 대전교구와 '충남 천주교 종교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지역 천주교 종교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천주교 대전교구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충남도 내 천주교 종교유산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 제반 사항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용역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 내년 8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충남도의 기초조사 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천주교 관련 유적은 서산 해미읍성과 해미읍성 회화나무를 비롯하여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합덕성당, 신리 다블뤼주교 유적지 △공주 중동성당,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 유적 △예산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예산성당 등 8개 시·군 13건에 달한다.

서산 해미읍성은 사적 제116호로 고창읍성, 낙안읍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조선 태종때 왜구를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해 세종 3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둘레 1.8km, 높이 5m. 면적 20만3천164㎡로 원형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래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충청병마절도사영이 위치했던 군사적 중심지였다. 이 성은 1651년 청주로 병마절도사영이 옮겨가기 전까지 서해안 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했으며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군관(軍官)으로 열 달 정도 근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읍성은 천주교도의 아린 아픔도 새겨져 있다. 1866년 병인박해시 1천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잡혀와 고문을 받았고 처형당했다. 이에 우리나라 천주교도들 사이에서는 해미읍성이 관광지에 앞서 성지(聖地)로 여겨진다.

실제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해미읍성을 찾고 그 곳에서 그들의 신을 찾으며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있다. 특히 2014년 8월에는 세계천주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해미읍성을 찾아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기도 해, 23개국 6천여 명의 가톨릭 신자를 비롯해 신자 등 2만 3천여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미읍성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순교 성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해미읍성은 천주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체험학습과 가족여행을 함께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으로 꼽힌다. 조선시대 포졸들이 지키고 서 있는 읍성 정문인 진남문(鎭南門)을 지나면 수령이 300년도 더 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서산지역에서는 '호야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천주교 박해시기에 신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데 이용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 신부유적은 우리나라 천주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1821~1846) 신부를 비롯해 김대건 신부의 증조할아버지(김진후), 작은할아버지(김종한), 아버지(김제준)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이다.

충남도와 천주교 대전교구는 이러한 천주교 종교유산을 2018년 잠정목록으로 등재한 후 2021년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에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 유적지구, 고창 황순, 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 양동 등이 있다. 또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이, 세계무형유산으로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남사당, 영산제, 제주칠머리영등굿, 처용무 등이 소중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중 불교문화 유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불교가 우리의 삶과 문화에 얼마나 깊이 작용하고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의 대표적인 백제 불교 유적의 하나인 서산마애삼존불의 경우, 단독으로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신규 단독 등재와 기존 등재유산의 확장으로 구분 되는데 신규로 단독 등재로 추진할 경우 이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되어 있는 실정에서 서산마애삼존불은 불상적 측면을 강조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여 등재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유일무이한 탁월한 가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백제역사유적 등재를 확장하는 경우도 현재의 등재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지만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편적 가치인 백제의 수도(공주、부여、익산), 왕도구성 주요 요소(왕궁、도성、사찰、관청 등)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교류、수용、확산이라는 등재기준을 재설정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서원과 전통사찰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알리고 위상을 강화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하나를 선정하고 그 특징을 내세워 등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남지역 백제불교문화 전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적인 불교유적으로의 특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유산 자체보다 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 대한 등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

백제역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세계 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이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전에 ICOMOS(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와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자문을 받은 이후 회의를 거쳐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ICOMOS는 문화유산분야를 자문하고, IUCN은 자연유산분야를 자문한다. 복합유산의 경우에는 ICOMOS와 IUCN 두곳 모두에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은 ICOMOS에서 그 자문을 담당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단순히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로 그 의미를 다하기는 어렵다. 지구촌이라는 말처럼'여행'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들을 통해 만들어 지는 국가 이미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세계유산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또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유산 등재는 치밀한 사전 준비과정과 등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정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이해와 함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등재 추진 전략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작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이나 국가 민족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활용해야하는 문화유산으로 인류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불교계와 불교유적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각기의 불교유적이 가지

고 있는 특성들을 통해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조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불교유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 한국 불교와 불교의 전통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서산시의회 의원
김 맹 호